

고급 포장기계 생산에 매진

좋은 부품이 우수한 기계 만들어

91년도 설립되어 이제 4년째 접어드는 젊은 회사 은성기계는 어린만큼 좋은 기계를 선보이겠다는 패기로 가득찬 슬리터전문 생산업체이다.

은성기계를 이끌고 있는 장양수 사장은 (주)서통 퇴직후 91년 부터 독자적으로 포장업계에 뛰어들어 인체공학적 제품을 선보이는 발군의 실력을 보인 숨은 실력자이다.

가격경쟁력 업계 최고

편하고 빠른 한국형 슬리터를 만들기 위해 10여년간 갈고닦은 실력으로 은성기계를 설립, 초기에는 슬

리터 부품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다 몇해전부터 슬리터 전문업체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94년 한해동안 투자기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인지 10억원 미만의 매출밖에 올리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장사장이지만 금년 신제품을 계기로 20억원 가량의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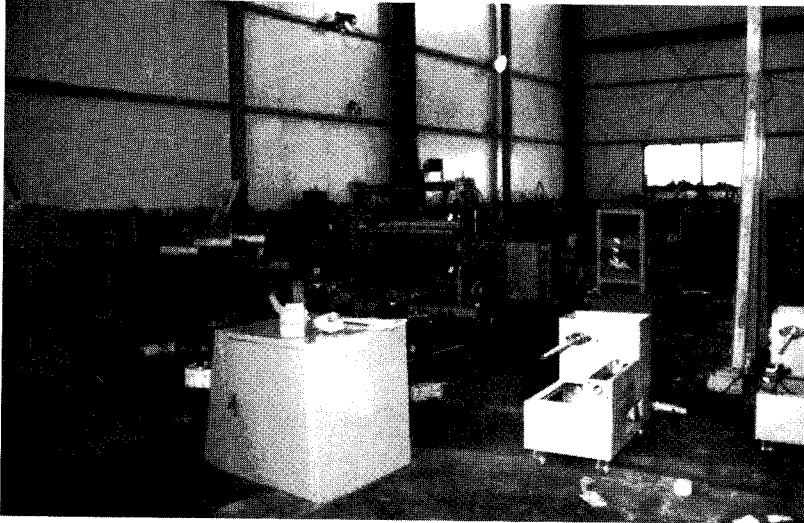
은성기계의 특징은 가격경쟁력과 품질이 “동업종에서 최고의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관리자를 특별히 두지 않고 최소인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슬리터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최고의 기능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면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현재 은성에는 5명의 기능공이 갈고 닦은 실력으로 최고의 슬리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사장 조차 경영자라기 보다는 오랜 연륜을 가진 기능공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며 특별히 영업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정장차림을 삼가한채 현장에서 일반 종업원 처럼 슬리터를 설계하고 제작하기에 여념이 없다.

또한 어느 회사에서나 시장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영업직원도 두지 않은채 기계제작과



▲ 은성기계를 설명하는 장양수 사장



▲ 공장내부전경

개발에만 매진하고 있다. 그래도 제품의 장점이 명확하게 고객에게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계속 상승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회사조직운영을 기계만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여 가장 저렴한 생산라인을 만들었다. 은성기계는 이러한 조직관리를 통해 경쟁사보다 40% 저렴한 가격대로 슬리터를 생산 판매할 수 있었다.

가족같은 분위기의 은성기계

어느 기업이나 그렇듯이 초기에는 어렵기 마련이다. 은성기계 또한 예외는 아니다. 부품전문업체로 출발하였지만 국내 슬리터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자금난에 허덕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대외적으로 어느정도 인정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선에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지금은 어느정도 자금난에서 해방됐다고 한다.

“무슨 배짱으로 혼자 시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선

배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직원들도 은성기계를 자신의 몸 다루듯이 정성껏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정도 제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성기계의 인원은 장사장까지 5명. 무척 적은 수다. 그런만큼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있다. 회사와 동료들 위할 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인화와 단결을 꾀한다. 은성기계가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은 적은 인원에서 나오는 인화, 단결이 한몫하고 있으며 경영이념인 전사원을 위해 존재하는 은성이라는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인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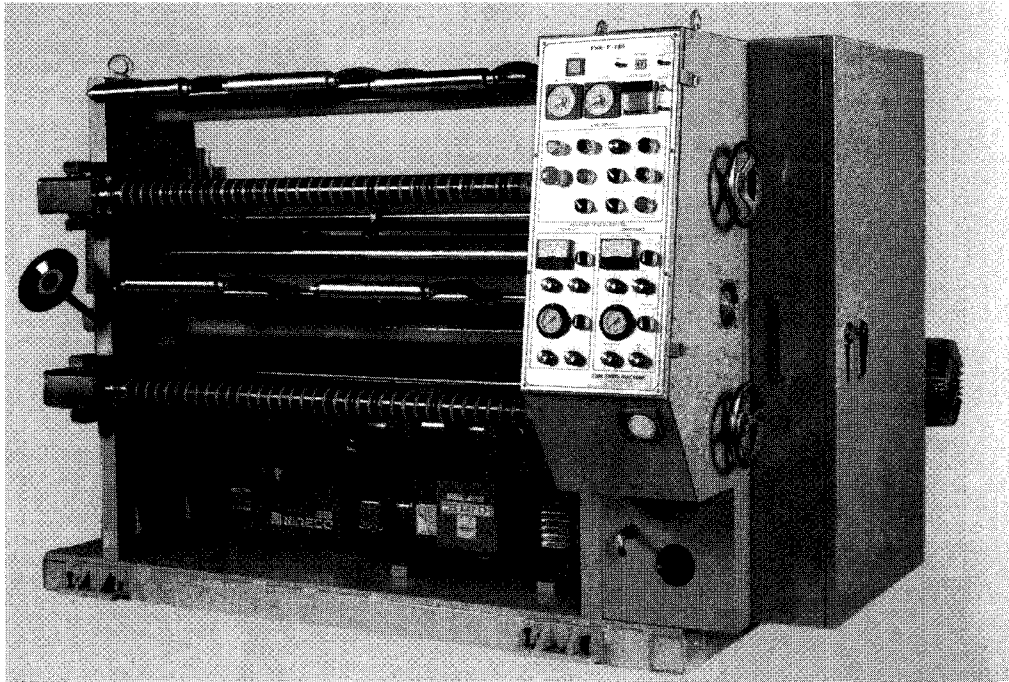
국내 기계류가 외제에 비해 소비자에게 약한 이미지를 심은 것은 정밀도와 내구성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적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품산업과 소재산업의 미발달과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밀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내 포장기계가 약한점은 뒷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

다. 즉 좋은 부품개발을 위한 노력과 출고되어있는 최상의 부품을 찾아 장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하는 장사장은 시장개척은 최고의 제품을 출고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 부품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은성기계는 맞는 부품을 자체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시험과 설계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사운을 걸고 기술개발 전력

현재 포장기계산업은 일본등 포장 선진국의 제품을 모방하는 단계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내 포장기계업체가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보다 선진국의 제품을 뒤늦게 국내 환경에 맞게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비단 국내 업계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슬리터만 하더라도 한번 설치하면 감가상각이 길기 때문에 새롭게 교체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주문에 의한 제작판매이기 때문에 생산비가 비싸고 소량생산하여 실제 기술개발비를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내업체가 다국적 외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할 부분은 기술개발투자에 사운을 걸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내 포장업계에서 사용하는 포장기계류는 독일, 이탈리아 등 포장기계 선진국의 제품이 고부가가치제품에 포진되어있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포장기계 생산업체들이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주문자 사양에 따라 기계류를 제작하고, 영세함을 면치 못하고 있어



◀ 서울팩에 출품하는
ENR-F-1300

선진국에 도전장을 내밀만큼 기술개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포장기계업체로 성장 가능한 기업이 몇개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장사장은 이 몇 안되는 전문업체대열에 참여하기위해 여력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투자를 한다고 한다.

최고급 포장기계 생산추구

슬리터를 중심으로 후가공 포장기계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은성기계는 고급화를 생명으로 하는 업체다. 그 결과 은성기계가 만든 기계를 사용한 기업은 다시 사용하고 싶어한다고 한다.

또한 기계사용주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작업을 시작한다. 이것은 기계사용주

가 어떠한 제품을 원하고 기존의 제품에서 무엇이 불만인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한 제품을 선보인다는 자세로 하나하나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의 부품과 질 좋은 장비를 사용하여 기계가공시 흔히 일어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최적의 부품을 사용하며, 이를위해 국내외 정보와 부품을 일일이 비교 고찰하는 것을 잊지않는다.

이렇게 생산된 은성의 슬리터들은 정확도가 뛰어나다고 사용자들이 평가해 주고 있다고하며 설립이후 A/S요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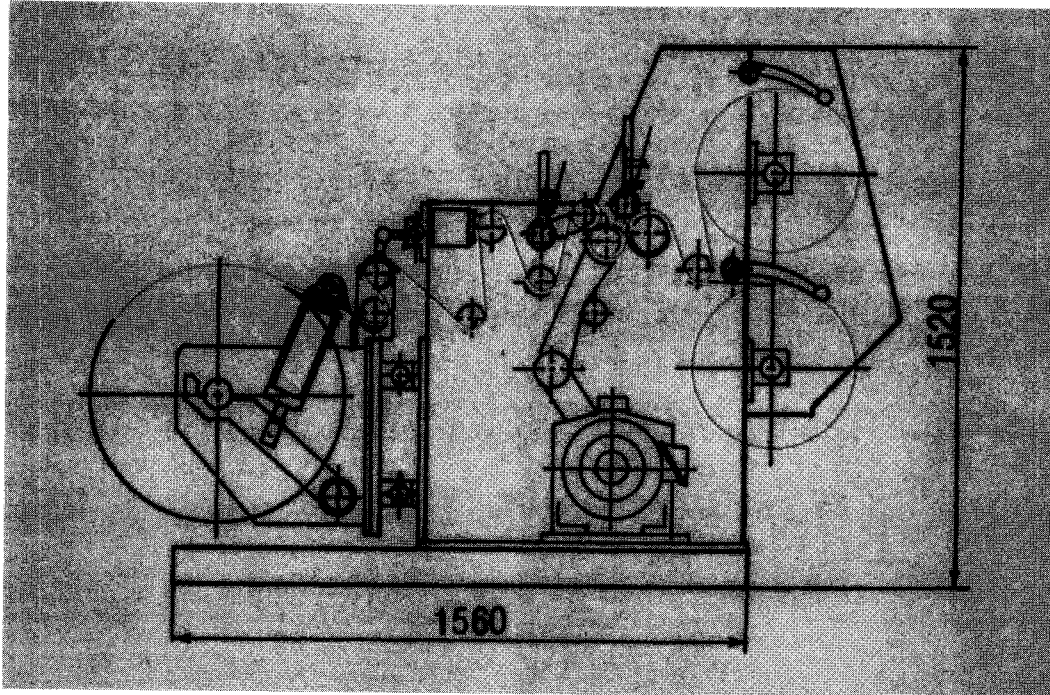
은성기계의 특징은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 있다. 즉 작업환경, 인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계를 설계, 제작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금번 서울팩에 출품하게 될 ENR-F-1300 슬리

터의 경우만 해도 3인치와 6인치 겸용으로 되어있으며 상하, 좌우로 자동작동할 뿐 아니라 중량의 재료를 셋팅할 수 있는 특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현재 작업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산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분진 등 작업환경을 해치는 것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ENR-F-1300은 은성기계가 최근 개발한 슬리터로서 종이, 셀로판, 폴리에스탈, 필름 등 재질을 절단하는데 적합하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전면에서 안과 밖으로 제품을 셋팅하기에 편리하다고 한다. 재료를 장착하기 위해 유압식 리프터 시스템을 채택하였고, 절단된 제품을 인출하기 위하여 리와인더 척킹 에어시스템을 도입한 제품이다.

은성기계가 이러한 특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그동안 100kg대에 이르



▲ ENR-F-1300 구조도

는 무거운 재료를 슬리더로 가공하기 위해 다른 기계와 복잡한 공정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슬리더 전면에 재료를 셋팅할 수 있는 특수 시스템을 장착하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정을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작업효율을 최대한 높였다.

또한 25mm 소폭으로 도고정도의 제품을 가공하도록 설계된 것과 후렉손 칼라가 볼 타입으로 설계되어 지관의 손실이 없고 분진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청결하게 제품을 가공할 수 있게 되어있다.

ESR-F-1300은 초박의 몬덴서 필름 및 고정도의 필름을 절단하는 슬리더로 물러의 정도 및 구동방식 모두가 종래의 기계차원을 초월하여 최신 기술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또한 장력은 작업자가 임의대

로 셋팅을 하면 작업상 일일이 다시 셋팅할 필요가 없어 국내 어느제품보다 편리하게 설계되었다고 자랑한다.

이처럼 최상의 제품, 고객이 만족하고 찾아주는 고객중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다.

은성 기계가 슬리더를 설계, 제작하면서 한가지 아쉬워하는 것은 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포장기계 산업의 한계에 굴하지 않고 최고의 전문기업으로 세우기 위해 분주하다. 그 방안으로 국내 상황에 맞는 포장기계의 생산과 적으나마 해외시장 개척을 선택했다. 전자의 경우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출고하여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후자는 국내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중심으로 꾸준히 동남아 등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 서있다.

“작년에도 몇대를 동남아에 수출했습니다. 아직 A/S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하자없는 제품인 듯 합니다. 현재 너무 적은 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에 한계가 많지만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꾸준히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인원이 보장되고 은성기계의 사세가 확장되면 직접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